
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 기획재정부 | | 보도참고자료 | |
| 보도일시 | 2021. 12. 9.(목) 12:00 | 배포일시 | 2021. 12. 9.(목) 11:00 |
| 담당과장 |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나윤정 (044-215-8570) | 담당자 | 김형구 사무관 (hgoo999@korea.kr) 박기오 사무관 (kokio1007@korea.kr) 김범석 사무관 (kbskbskbs@korea.kr) 김지희 주무관 (hijh@korea.kr) |
| |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김충환 (044-202-3370) | | 김효리 사무관 (hyolee.kim@korea.kr) |
| |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주평식 (044-202-7454) | | 박진영 서기관 (jyp88@korea.kr) |
| |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총괄과 오진희 (02-2100-1240) | | 강준혁 서기관 (woomock@korea.kr) |

'21년 장래인구추계('20~'70년) 분석

1 '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

총괄

- (총인구) '20년 5,184만명에서 '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기 시작, '30년 이후 가속화되어 '70년 3,766만명에 이를 전망(중위추계 기준)
 - * 총인구(만명): ('20) 5,184 → ('30) 5,120 → ('70) 3,766(1979년 수준)
- 인구 자연감소(출생아수-사망자수)가 지속되는 가운데,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'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
- (인구 자연감소) 출생아 수 감소, 사망자 수 증가로 '20년 △3만명에서 지속 악화되어, '30년 △10만명, '70년 △51만명까지 확대
 - * 출생아수: '20년 27만명→'70년 20만명으로 감소('20년의 71.5%)
 - * 사망자수: '20년 31만명→'70년 70만명 증가 전망('20년의 2.3배 수준)

- (국제순유입) 코로나19 영향으로 '20-'21년 △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다 '22년부터는 순유입 전환되고 이후 '30년까지 연평균 4.7만명 전망
* 국제순유입(만명): ('20)△5.8 →('21)△6.3→('22)0.8→('23)4.3→('25)5.7→('30)4.6

- (합계출산율) '20년 0.84명에서 '24년 최저 수준인 0.70명까지 하락 후 반등*해, 완만히 회복 전망('31년 1.0명, '46년 1.21명)
* 코로나 19로 연기된 혼인 회복, 2차 에코세대(출생아수 70만명대)인 91년생의 30대 진입 등

<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(1960-2070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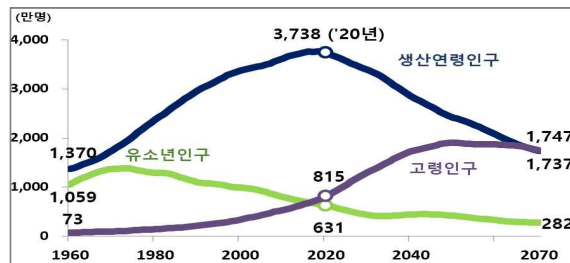
< 출생·사망·자연증감(1960-2070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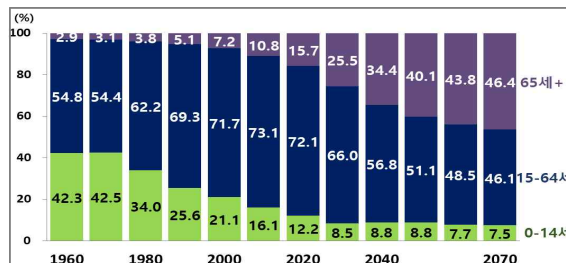
인구구조

- (생산연령인구) '20년 3,738만명에서 10년간 357만명 감소해 '70년 1,737만명에 이를 전망(비중: '20년 72.1% → '70년 46.1%)
○ '20년대는 연평균 △36만명, '30년대는 연평균 △53만명씩 감소 전망
* 생산연령인구(15~64세, 만명): ('20) 3,738 → ('30) 3,381 → ('70) 1,737
- (유소년·학령·고령인구) 유소년·학령인구는 지속 감소하며 고령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'50년을 정점으로 감소
* 유소년인구(14세 이하, 만명): ('20) 631 → ('30) 433 → ('70) 282
학령인구 (6 ~ 21세, 만명): ('20) 789 → ('30) 594 → ('70) 328
고령인구 (65세 이하, 만명): ('20) 815 → ('50)1,900(정점) → ('70)1,747

< 연령별 인구구조(1960-2070) >



< 연령별 인구구성비(1960-2070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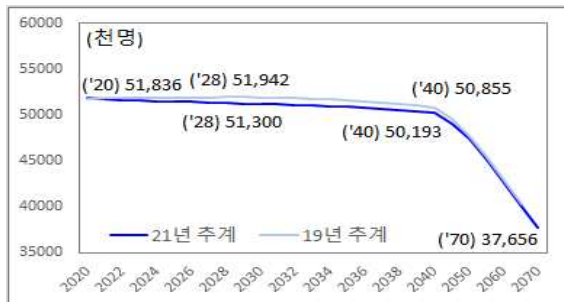
- (중위연령) '20년 43.7세, '31년 50세 넘어 '70년 62.2세까지 상승 전망
* 중위연령 도달시점: 30세('97년), 40세('14년), 50세('31년), 60세('56년)
- (노년부양비) 생산연령인구가 1백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는 '20년 21.8명에서 '70년에는 100.6명으로 4.6배 증가

총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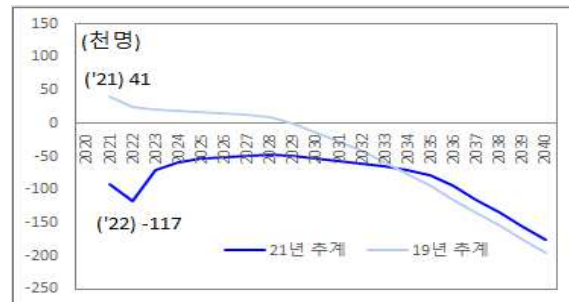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총인구* 감소시점은 '21년으로 '19년 장래인구특별 추계(이하 "19년 추계")에서 전망한 '29년보다 8년 빨라짐

* 총인구 변화 = 인구자연증감(=출생아수-사망자수) + 인구 국제순이동

< 총인구 전망 >



< 총인구 변화 전망 >



- **(원인분석)** 코로나19로 인해 ①혼인·출산이 급감하는 가운데, ②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

- ① (혼인·출산) '20.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감소*함에 따라 향후 3~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

* 혼인건수 증감률(% , 전년동기) : ('20.1Q) -1.3 (2Q) -16.4 (3Q) -11.0 (4Q) -13.6 ('21.1Q) -17.6 (2Q) -5.4 (3Q) -6.8 (과거5년 평균 -4.7%)

- ② (국제순이동)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인구유입이 급감하며 '20년, '21년 순유입자수가 기존 전망보다 13만명씩 감소

* 국제순이동자수('21년 추계, 만명) : ('20) -5.8 ('21) -6.3 ('22) 0.8 ('23) 4.3

국제순이동자 추계 차이('19-'21년 추계, 만명) : ('20) -13.0 ('21) -13.1 ('22) -5.5 ('23) -1.6

- **(시사점)**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이 총인구 변화 추이에 영향 미쳤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

- '30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혼인·출산율 반등, 국제 이동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 회복 속도에 따라 총인구 감소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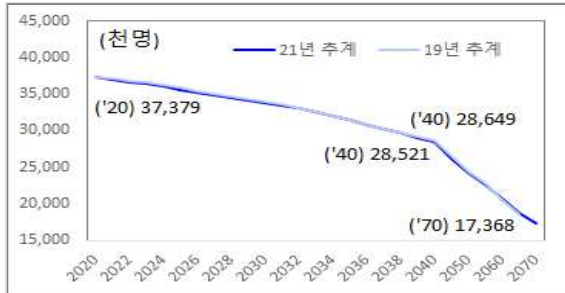
* 코로나19 빠른 회복 전제하 고위추계는 '38년 5,296.7만 명까지 총인구 증가 전망

⇒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이 인구 측면에서도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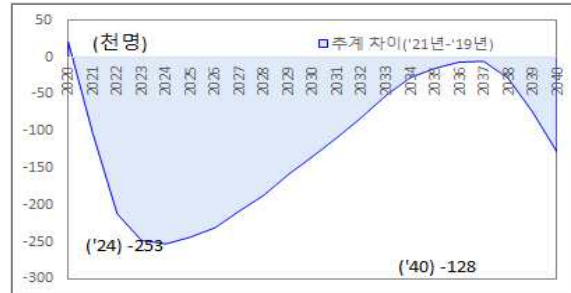
생산연령인구

- **(현황)**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, '19년 추계(151만명) 대비 감소인원은 26만명 이상 증가

< 생산연령인구 전망 >



< 생산연령인구 추계 차이 변화 >



- **(시사점)** 향후 5년여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인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

저출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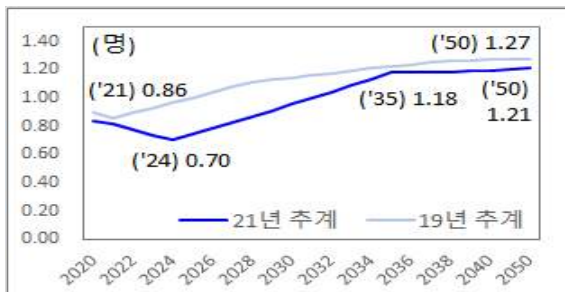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코로나19 영향*으로 향후 3~4년간 출산율·출생아수 하락이 예상되지만, 이후 반등해 '19년 추계 수준까지 회복 전망

* 최저 합계출산율 : ('19년 추계) '21년 0.86명 vs ('21년 추계) '24년 0.70명
 최저 출생아수 : ('19년 추계) '21년 29.0만명 vs ('21년 추계) '23년 23.3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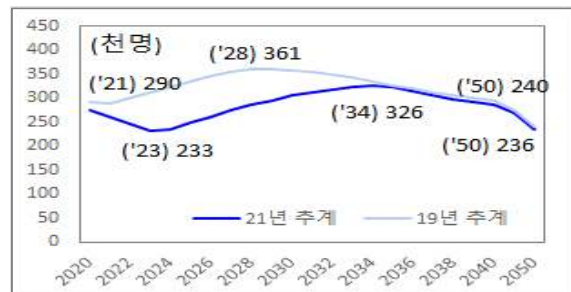
- 다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저출산 기조 심화 사례 발생

* 프랑스 : ('18) 1.84 → ('19) 1.84 (-0.01) → ('20) 1.80 (-0.03) → 감소폭 확대
 뉴질랜드 : ('18) 1.71 → ('19) 1.72 (0.01) → ('20) 1.61 (-0.11) → 감소 전환

< 합계출산율 전망 >



< 출생아수 전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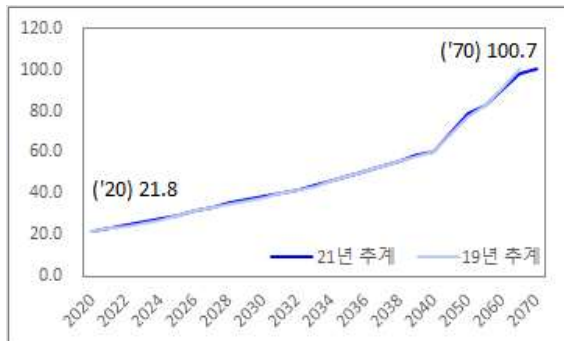
- **(시사점)**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조기에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·육아 지원정책 필요

* 일본('05년 1.26 → '19년 1.36), 독일('94년 1.24 → '19년 1.54), 체코('99년 1.13 → '19년 1.71), 슬로바키아('02년 1.19 → '19년 1.57) 등 초저출산 경험 후 반등한 국가 사례 다수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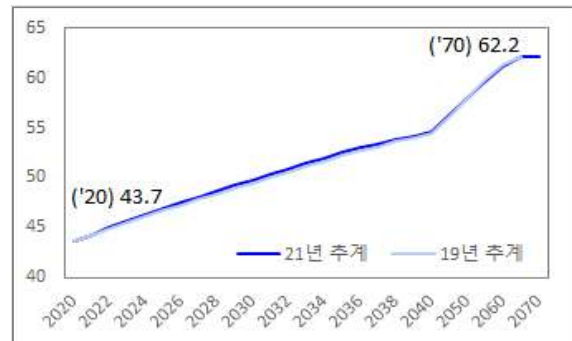
고령화

- 고령화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등 단기충격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 '19년 추계와 추세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

< 노년부양비 전망 >



< 중위연령 전망 >



< '21년-'19년 추계 주요지표 차이 >

| | '19년 추계(A) | '21년 추계(B) | 차이(B-A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총인구 감소시점 | '29년 | '21년 | -8년 |
| 직전인구 (천명) | '28년 51,942 | '20년 51,836 | -106 |
| '24년 생산연령인구 (천명) | 36,282 | 36,029 | -253 |
| 최저 합계출산율 (명) | '21년 0.84 | '24년 0.70 | -0.16 |
| 최저 출생아수 (천명) | '21년 290 | '23년 233 | -57 |
| 고령인구비중 20% (초고령사회) | '25년 | '25년 | 0년 |
| '65년 노인부양비 | 100.4 | 98.1 | -2.3 |
| '65년 중위연령 | 62.2세 | 62.1세 | -0.1세 |

3 대응 방향

-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양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간 일관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옴
- ①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('21~'25년)」 통해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 마련 등 영아기 집중투자로 부부가 아이 낳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

<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>

- ❶ (부부 육아휴직 활성화) 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, 육아휴직급여 인상
- ❷ (영아수당 신설) 0-1세 영아수당 지급('22년 월30만원 → '25년 월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)
- ❸ (첫 만남 꾸러미) 첫만남이용권 도입(200만원)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(60→100만원)
- ❹ (공보육 강화)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(국공립어린이집 매년 +550개)
- ❺ (다자녀 지원 강화) 셋째자녀 이상(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)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등

- 금년엔 핵심정책의 법적근거 마련*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

*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, 아동수당법 개정 등

- ❷ '19년부터 매년 운영된 1~3기 「범정부 인구정책 TF」
통해 기존 ①출산을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
대처하기 위한 ②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
하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- 이를 통해 ①생산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, ②축소
사회 대응, ③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, ④지역소멸 선제
대응 등 경제·사회 전분야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

□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장기 인구추세 악화로
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의 정책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새롭게
필요한 조치들도 점검하여 총력대응 해나갈 계획

- ❶ 우선 코로나19로 심화된 저출산 기조를 조기 반등시킬 수
있도록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 등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
차질없이 집행할 예정

- 특히 신규사업이 현장에 정착하여 적극 활용되고, 수혜자
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책 메시지 전달을 강화

②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'22년 제4기 인구정책 TF 운영 등 관련 정부대책 통해 대응

-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인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*

*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, 고령자 계속고용,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

- 디지털·그린 전환,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핵심 기술인재 양성 등 질적 성장 전환 위한 미래성장경로 개척

③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분석·논의를 강화하고,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참여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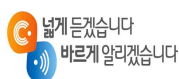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인구변화 추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*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**

* 논의결과는 12월중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

** 종교계 공동 캠페인 통한 의제발굴논의, '22년 저출산·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·이행 등

- 인구정책TF 통해 구성한 인구정책연구단*의 세미나 개최, 연구단 기고 등 본격적 활동 통해 대국민 인식도 제고

* 제3기 인구TF 통해 구성 → 경인사연, KDI 중심으로 여러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합동연구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

| <div>  <div>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!</div>  </div> | | | |
|---|--|--|--|
| | 첫만남이용권 | 영아수당 | 아동수당 |
| 주요 내용 |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(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) |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지급(24개월) *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 |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('22~) |
| 적용 대상 | '22.1.1. 이후 출생아 | '22.1.1. 이후 출생아 | 만 8세 미만 아동 |
| 지급 금액 | 200만원 | 월 30만원 * '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 | 월 10만원 |
| 지급 방식 |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※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, 사행,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 | 계좌에 현금 입금  | 계좌에 현금 입금  |
| 지급 시기 | '22.4.1.~ ※ 지급시기가 '22.4.1~ 임에 따라, '22.1~3월 생의 경우 '22.4.1~'23.3.31일까지 사용가능 | '22.1.25.~ (매월 25일 지급) | '22.4.25.~ (매월 25일 지급) ※ 4월 지급 시, 1~3월분 소급 지급, '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|
| 신청 시기 | '22.1.5.~ | '22.1.5.~ | '22.2월 중(추후안내) |
| 신청 방법 | <div> <div>방문</div> <div>  <div>주민센터</div> </div> <div>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※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</div> </div> <div> <div>온라인</div> <div> <div>복지로 (bokjiro.go.kr)</div> <div>정부24 (gov.kr)</div> </div> <div> ※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(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) </div> </div> | | |

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 (60 → 100만원), '22.1.1.~(임신 확인 시, 신청일 기준)
 ※ 아동 출생 전,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“국민행복카드”를 발급받은 경우,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(200만원) 지급
 ※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(월 50만원),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(9~180만원) 지급